

제 1 교시 국 어

1. ㉠에 들어갈 사과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네 잘못이 커!
- ② 누가 거기 서 있으래?
- ③ 너, 엄살이 너무 심하구나.
- ④ 미안해. 내가 실수로 그랬어.

2.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은?

- ① 너는 참 멋지구나! ② 네 이름이 뭐니?
- ③ 안녕히 주무세요. ④ 두부 좀 사다 주렴.

3. 다음 글에서 글쓴이의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미야, 어제 네가 생일 선물로 준 꽃이 정말 예뻐서. 향기도 참 좋았어. 멋진 선물을 주어서 고마워.

- ① 미운 마음 ② 고마운 마음
- ③ 무서운 마음 ④ 아쉬운 마음

4. 문장의 호응 관계가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숲 속에서 토끼가 지저귄다.
- ② 이 창문은 전혀 쓸모가 없다.
- ③ 나는 동생보다 키가 더 무겁다.
- ④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다.

5. 다음 중 고유어는?

- ① 커피 ② 택시 ③ 하늘 ④ 학교

6. ㉠에 들어갈 뒷받침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중심 문장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즐겨 하는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

(㉠)

단오에는 씨름을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쥐불놀이를 합니다.

- ① 설날에는 연날리기를 합니다.
- ② 규칙적인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 ③ 책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④ 교통질서를 지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절한 낱말은?

- 너는 웃는 (㉠)이/가 참 예쁘구나.
- 나는 창피해서 (㉠)을/를 들 수가 없었다.

- ① 다리 ② 마음 ③ 바다 ④ 얼굴

8. 문장의 구조가 다른 하나는?

- ① 꽃이 예쁘다. ② 가방이 가볍다.
- ③ 토끼가 뛰어간다. ④ 합창단이 노래를 부른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언젠가는 나도 권영상

언젠가는 나도
늪뚝한 줄무늬 개구리가 되겠지.
지금은 불품없는 꿈지로
숨죽여 사는 올챙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굵고 큼직한 목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겠지.
개굴개굴개굴개굴

지금은 좁은 물웅덩이에 갇혀 사는
어린 올챙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더 큰 세상으로 (㉠)! 뛰어오르는
늪뚝한 줄무늬 개구리가 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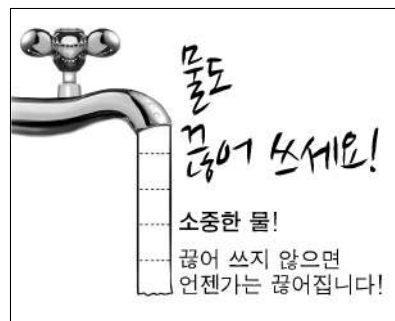
9. 위 시에서 말하는 이는?

- ① 줄무늬 ② 올챙이 ③ 노래 ④ 물웅덩이

10.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쟁충 ② 꼬르륵 ③ 보글보글 ④ 새근새근

11. 다음 광고에서 전하려는 내용은?



- ① 물을 아껴 쓰자.
- ② 차례를 잘 지키자.
- ③ 부모님께 효도하자.
- ④ 음식을 남기지 말자.

12. 국어사전에서 ㉠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야 할 낱말은?



이튿날 새벽, 우리는 일출을 보기 위하여 우도봉에 올랐다. 해가 ㉠ 뜨기 전이라 그런지 어두워서 주변은 잘 보이지 않았다.

- ① 뜨고 ② 뜨다 ③ 뜨니 ④ 뜨면

13. 다음 글의 공간적 배경은?

일이 늦게 끝나 캄캄한 밤에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풀숲을 지나는데 찬우의 발길에 놀란 반딧불이가 화려르 날아올랐습니다. 반짝반짝 빛을 내며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가 날아오르자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 ① 밤 ② 풀숲 ③ 아침 ④ 반딧불이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양에 오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판소리가 있습니다. 판소리는 오페라와 같은 종합 예술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판소리는 소리꾼이 홀로 수십 명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예술입니다. (㉠)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등장인물이 필요합니다.

판소리는 북 하나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페라에는 많은 비용을 들인 무대 장치와 극장이 필요합니다.

1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나 ② 별로 ③ 비록 ④ 하필

15.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판소리와 오페라는 종합 예술이다.
 ② 오페라는 무대장치와 극장이 필요하다.
 ③ 판소리는 북 하나만 있어도 공연할 수 있다.
 ④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한 명만 필요하다.

16. ㉠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 나갈 방법이 생기면 마련이야.

- 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②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③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예쁘고 사랑이 담긴 언어를 써야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들이 성공의 기회를 끌어당기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쓰는 말버릇이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천박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쓰는 말버릇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17.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 ① 자연을 개발하자.
 ② 손을 깨끗이 씻자.
 ③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자.
 ④ 이산화 탄소의 사용량을 줄이자.

18.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약이 쓰다. ② 커피가 쓰다.
 ③ 입맛이 쓰다. ④ 높임말을 쓰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p>오후가 되자, 스크루지는 조카의 집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p> <p>스크루지는 열두 번도 더 대문 앞을 지나치고 나서야 두드릴 용기를 냈다. 어쨌든 스크루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두드렸다.</p> <p>문을 열어 준 하녀에게 스크루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p> <p>“애야, 주인아저씨 계시냐?”</p> <p>“예, 어르신. 식당에 계십니다. 마님과 함께 계세요. 위층으로 모셔다 드릴까요?”</p>	<p>때: 오후</p> <p>곳: 조카의 집</p> <p>등장인물: 스크루지, 하녀</p> <p>㉠ 스크루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조카의 집 현관 앞에서 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린다.</p> <p>하녀 (문을 열어 얼굴을 내밀며) 누구세요?</p> <p>스크루지 (㉡)</p> <p>애야, 주인아저씨 계시냐?</p> <p>하녀 (공손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예, 어르신. 식당에 계십니다. 마님과 함께 계세요. 위층으로 모셔다 드릴까요?</p>

19. ㉠에 해당하는 희곡의 요소는?

- ① 관객 ② 대사 ③ 배경 ④ 해설

20. (가)를 (나)로 바꾸어 쓸 때 ㉡에 가장 알맞은 말은?

- ① 눈물을 흘리며 ② 소리를 지르며
 ③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④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